

하늘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힘 받나

생태계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다수 확인 "보호지역 지정 기준 적합"... 도, 토지주와 논의 추진

다양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며 보존돼 온 하늘분화구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늘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대 연구진의 하늘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하늘분화구의 생물종은 식물

95과 320분류군, 포유류 4과 4종 조류 25과 49종, 양서·파충류 6과 7종, 담수어류 3과 5종, 육상곤충 100종, 저서성무척추동물 38종, 동물플랑크톤 32종, 식물플랑크톤 174분류군 등 총 729분류군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했다.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인 물고사리, 삼백초 2종의 식물과 매(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새매(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흑두루미(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두견이(천연기념물) 등 7종과 문헌으로 잣빛개구리매(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큰말뚝가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의 법정보호종 종류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대 연구진은 하늘분화구는 원시적 생물서식 환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총 729종의 야생생물 서식 등 생물다양성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늘분화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주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시·도가 습지의 자연 생태가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지역이다.

한편 하늘분화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마르형 분화구이면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타임캡슐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원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무력무력 자라림" 장맛비가 잠시 멈춘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분주한 손길로 비트 모종을 심고 있다. 이상국기자

특하면 물난리 겪는 탐동 일대 정비 착수

제주시 3년간 156억원 투입 도내 첫 우수저류조도 설치

제주시 탐동 인근 해수면 인접지 지하에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시설하는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시행한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계가 마무리돼 최근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라마다호벨제주~삼도119센터)은 해수면과 맞닿아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물론 해수면 만조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총 156억원(국비 78억 포함)을 투입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1만8500t 규모의 우수저류조, 170m의 배수관로와 배수문 등을 시설해 해수면 만조 때 우수를 저류해 침수를 예방하게 된다.

우수저류조가 설치될 위치는 라마다프라자호텔 동측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상가와 주택 밀집지로 저류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 협의를 마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삼도2동 명호천 하류 지역의 상습 침수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지방세 체납액 절반 이상 '자동차세'

서귀포시 오늘부터 17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서귀포시는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에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서가 발부되고 압류 예고가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 탐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을 포함한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서귀포시 전 지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역 내 19곳에 자동차세 납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문자 발송, 읍면동 자생단체를 통한 대 주민 홍보 활동으로

단속 전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9억7000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0억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권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고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예비사회적기업 늘려 일자리 키운다

서귀포 지역 2곳 신규 지정 향후 2년간 20곳 추가 발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이 대폭 확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귀포지역 2곳을 2020년 제1차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서귀포지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9곳, 예비사회적기업 20곳 등 모두 29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재)서귀포장애인단체연합회·우리휴케어주식회사 등 2곳이다. (재)서귀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라 입주 건물 1층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휴케어주식회사는 건물·집안청소, 휴케어메니저 교육·양성 등에 탄력을 더해 갔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기업의 홍보·마케팅·시험제품 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시설보강·장비구입을 위한 '자립기반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서귀포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2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자립기반사업비 등으로 모두 6억4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향후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 20곳 이상을 추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을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현영종기자

"청년저축계좌, 서둘러 신청하세요"

제주시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인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하고 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4587

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구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함께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와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시는 이달 17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장려금을 적립한다. 지난 4월에는 신규 신청한 74명 중 38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모집 가능 인원은 80명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통계청 2020 경제통계 조사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이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공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 사업체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이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공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